

국방부 조직개편안 확정 발표

— 전력 발휘 위주 효율적 전투조직으로 정비

국방부는 지난 2월 13일 국방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새로 개편되는 국방조직은 상부기구를 미래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능률위주로 간편화하고, 하부조직은 전력발휘위주로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어 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전투조직으로 정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본부는 자원획득 및 관리위주로 개편하여 경제적인 군 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합참본부는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작전체제를 확립, 3군 전력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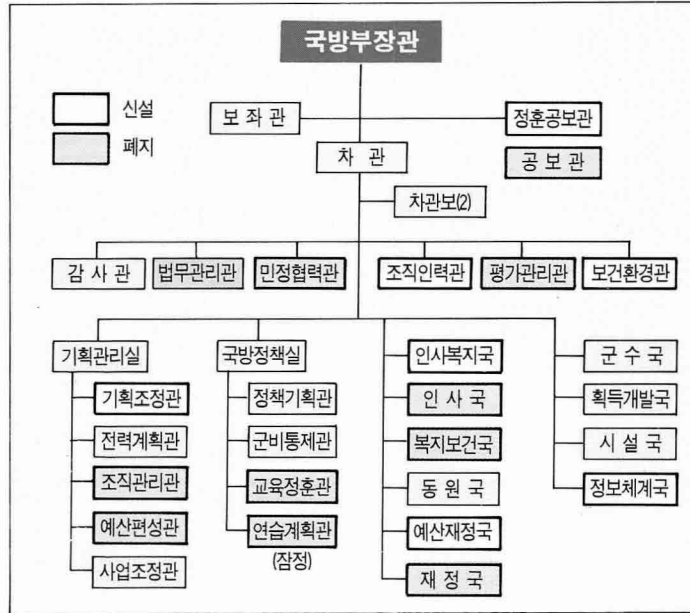
각군본부는 교육훈련 및 부대관리 중심으로 조정하여 각군의 전력이 최대한 유지·발전되도록 하였다.

이는, 상부기구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예화하고, 절약된 병력과 국방자원을 전투부대 위주로 전환, 강인한 교육훈련을 통해 군의 기강을 새롭게 확립함으로써 선진 군대모습으로 바뀌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통신 신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체계국을 국방부에 신설함으로써 병력위주의 현조직을 앞으로 기술집약형의 선진 **군조직**으로 탈바꿈해 나가겠다는 장기목표를 개편안속에 담고 있다.

국방부는 4월 1일 이전까지 새 조직개편안에 따라 상부기구를 대상으로 명확한 기능배분과 역할분담을 해 나갈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본부는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조직관리와 인력운용, 심사평가와 민정협력 및 행정관리, 인사·교육과 복지, 정훈과 공보 및 홍보기능등 유사기능은 각각 통합하였으며, 정보체계국, 보건환



경관을 시설하고, 군사시설보호 및 연습계획은 합참으로, 원기관리는 조달본부로 그 기능을 이관하였다.

특히 특검단을 해체하여 울곡감사 기능을 감사관실로 통합·보장시켰다.

특검단의 경우는 69년 2월 창설이후 군의 전투준비태세강화와 울곡감사등 자주국방체제를 강화하는데 큰성과를 거두었으나, 이제는 국방 예산제도의 변경 및 합참 전비태세 검열기능 강화등으로 인해, 국방부 본부내의 정상적인 감사기능을 보장하여 울곡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사정 및 검열기능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나 합참 전투준비태세검열실 등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기회에 발전적으로 임무를 조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방부본부는 종래의 7국 13관 79과에서 7국 11관 74과로 개편되어 국급의 2개관과 5개과가 감소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작전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장 형태의 참모편성을 합참차장 중심의 일반참모 형태로 참모부를 편성·조정하여, 합참차장이 전·평시 참모업무 및 군사작전을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유사기능과 조직을 과감히 통·폐합하였으며 무기체계와 전력소요 및 시험평가 기능을 강화시켰다. 그 결과 종래 3개 본부 및 4개 참모부를 6개 참모부로 개편함으로써, 인력은 13%가 감축될 예정이다.

각군본부는 군사력건설 소요제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정보·작전참모부를 통합하고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통신·전산기능을 통합하며 특과감실은 육군이 4개, 해·공군이 각 2개를 통폐합하였다.

육군의 동원업무는 기능에 따라 각 참모부로 이관하고, 인사업무체계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인사

운영감실을 인사참모부에 통합시켰다.

그 결과 육군본부는 잠정기구를 포함, 종전 6부 15감실에서 5부 11감실로, 본부의 간부인력은 20% 감축되었다.

해군본부는 5부 12감실에서 4부 11감실로, 1부 1감실이 감소되어 15%의 인력감축을 보았고, 공군본부는 5부 10감실에서 4부 10감실로, 1부가 감소되어 11%의 인력감축을 가져왔다.

한편 여기서 조정된 인원은, 군인은 전투부대로 배치하거나 교육 및 연구인력등을 보장하며, 군무원은 미운용 직위나 새로운 편제직위로 전환하고, 일반직은 현정원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속기관 등에 직위를 부여하여 개인별 인사관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기구 및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연구 활성화 위해 '94 방산 우수논문 시상



한 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2월 16일 국방관련 학교기관의 피교육생들이 재학 중에 연구한 방위산업에 관련된 논문중 우수논문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본 방산관련 우수논문 선발 포상제도는 자주국방의 핵심분야인 방위산업의 중요성에 대

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상황에 부합된 방위산업으로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활동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94년에 이어 2번째로 시행되었다.

또한 금번 선발시상을 통해 방위산업분야 연구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방위산업의 실상 인식 및 이해와 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교육기관에서 연구된 방산관련 아이디어를 정책개발 및 방산업체 운용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94년도 논문중 국방대학원 재학중 김홍식 서기관(국방부 군수국)이 연구한 「방산물자원가계산제도에 관한 연구」와 정인수 소령(육군)이 연구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방위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2편을 우수작으로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본제도로 인해 학교기관의 방산관련 학술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